

裸女 앞에 선 원효, 그리고 그의 숭고한 체험*

김 기 호**

- I. 머리말
- II. 원효의 ‘해체와 깨달음’의 심리 구조
- III. ‘불쾌와 쾌’의 숭고미
- IV. 여성이 곧 보살이라는 종교적 체험
- V. 맺음말

국문초록

원효 전설인 <나녀의 유혹>은 구조, 미학, 여성학 등의 면에서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완성도 또한 높은 작품이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원효의 깨달음의 심리적 과정을 잘 생성하였다. 원효의 인식을 해체하고 전회를 통해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창조하였다. 미학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불쾌의 감정과 쾌의 감정을 통합한 ‘불쾌-쾌’의 숭고 미학을 성취하였다. 여성의 존재를 원효가 포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실패함으로 불쾌의 감정이 유발된다. 이어서 원효가 자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내면에서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희열의 쾌를 맞본다. 이렇게 하여 원효가 ‘불쾌-쾌’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bluemn664@naver.com

의 감정을 함께 맛보게 되면서 <나녀의 유혹>은 승고의 미를 성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녀의 유혹>을 여성성불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관점을 통해 남성의 관점을 해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여성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다’라는 문학적 은유가 읽힌다는 점이다. 이 작품이 원효의 다른 설화들과는 달리 진리로서 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인정된다.

◆ 주제어

원효, 나녀, 인식, 존재, 깨달음, 승고미, 여성성불론, 관세음보살, 자재암

I. 머리말

원효 전설 <나녀의 유혹>은 여성과의 만남의 시공간에서 그 여성에 대한 젊은 원효의 진리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구성된 이야기다. 니체가 『선과 악의 저편』에서 모든 독단적인 철학자들이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혐의에는 근거가 있다고 했듯이¹⁾ 이 이야기에서 젊은 원효 또한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혐의의 근거를 니체는 독단적인 철학자들이 소름 끼칠 정도의 진지함과 서툰 주체념은 자신감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에서 찾는다. 마찬가지로 원효의 혐의 또한 한밤중에 그를 찾아온 여성에 대한 젊은 청년 수도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독단적인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원효 또한 여성의 호감 곧 진리를 얻지 못한다.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이 이야기의 화자 또한 진리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고 그 여성에 맞는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나녀의 유혹>에서 ‘진리가 나녀라면, 어떠한가?’라는 관점에 서면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서면 첫째 수도승 원효가 여성에 대해 보여준 시선의 점진적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여성에 대한 청년 원효의 인식의 변화는 미학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생성하는가? 셋째 성자 원효의 인식 변화가 낳은 미학은 종교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들을 생성할 수 있다. 여성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여성을 보는 원효의 인식 변화, 그리고 원효의 인식 변화가 가져오는 미학, 미학이 안내하는 궁극적인 종교적 체험 등 작품 <나녀의 유혹>이 품고 있는 미학적·종교적 해석의 장을 개방할 수 있다.

<나녀의 유혹>은 원효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다른 이야기와 달리 그렇게 광포하게 전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이야기의 전승은 이 이야기

1)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19, 9쪽(e-book)

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승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생성 및 전승되는 곳은 자재암이다. 자재암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²⁾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원효가 창건한 암자’이다. 그리고 ‘자재암이라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은, 원효가 요석공주와 관계를 가진 뒤 관음보살이 변신한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을 설법을 통해서 물리친 후, 다음날 관음의 진신을 친견하고 무애자재인을 상징하며 자재암이라고 했다고 한다.’ 절 내 안내 간판에도 ‘자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깊은 사찰’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나녀의 유혹>은 말하자면 원효에 대한 성자전설이기도 하지만 자재암과 관련해서는 자재암 연기 전설이다. 이 전설 텍스트는 최정희가 채록한 것이 거의 유일무이하다.³⁾

<나녀의 유혹>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 성과도 보인 적이 없다. 분명 이 설화는 원효에 대한 성자 전설이며, 자재암 연기 전설이기도 하다. 원효 관련 대표 전설에는 『송고승전』에 보이는 해골 물을 마시는 원효 이야기, 『삼국유사』에 수록된 낙산사 관음친견을 하는 원효 이야기, 『삼국유사』 「사복불언」 조의 원효의 이야기 등이 있다. 이들 설화와 비교해 볼 때 <나녀의 유혹> 설화가 청년 원효의 깨달음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설화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원효 설화와 비교해서 <나녀의 유혹>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특이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에는 다소의 흠이 있다. 이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최정희의 『한국불교전설99』를 보면 이 작품이 채록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채록 시기와 장소,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또한 텍스트의 내용은 상당히 오염된 모습이다.⁴⁾ 즉 이 작품의 내용에 이 책 편찬자의 덧붙여 쓰는 형식의 개입이 다소 있어 보이기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재암」(<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067>, 2023년 8월 6일 검색)

3) 최정희, 『한국불교전설99』, 불기2530, 29~33쪽.

4)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 분석이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문헌자료, 구연자료 등을 조사하고 대비하여 기본형 설화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이다. 자재암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전승이라는 점, 고전문헌에 보이지 않는 점, 채록 텍스트로서 결점과 오염성이 보인다는 점 등으로 이 작품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몇 가지 제한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작품은 매우 흥미롭다. 먼저 청년 수도자 원효의 시각을 통해 불교적 여성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둘째 <나녀의 유혹>이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및 「광덕과 엄장」 등과 상호텍스트성을 띠는 것이 주목을 끈다. <나녀의 유혹>을 포함한 세 개의 텍스트는 ‘성스러운 여성과 남성 수도승의 만남’이라는 매우 관능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깨달음의 성자 전설 셋트이다. 셋째 미학적으로 <나녀의 유혹>은 ‘불쾌-쾌’의 미적 감정인 숭고미를 형상화한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보인다. 넷째 종교적으로 <나녀의 유혹>이 숭고미와 함께 특별히 초월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한다. 그 가운데 이 이야기는 성자 전설로서 윤리적·초월적 체험과 관련한 종교적 깨달음을 맛보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나녀의 유혹>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나녀와 원효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어떻게 의미론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둘째 이야기의 미적 체험인 숭고의 미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셋째 이 이야기의 구조가 담고 있는 원효의 깨달음의 의미[sense]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女性成佛論’의 관점에서 대화적 의미[significance]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녀의 유혹>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시도는 시론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II. 원효의 ‘해체와 깨달음’의 심리 구조

<나녀의 유혹>은 지역성과 역사성이 뚜렷한 그리고 성자 원효의 깨달음을 알리고 그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전설이다. 신화적

이데올로기성이나 동화적 오락성은 약한 설화인 셈이다. 이 이야기가 채록된 자료집으로 최정희의 『한국불교전설99』가 유일하다. 수록자의 개입이 많아 내용이 오염되었다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채록자, 자료의 제보자, 채록의 공간과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텍스트의 신뢰성에 결함이 보인다.⁵⁾ 이러한 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최정희의 채록 및 수록 자료인 <나녀의 유혹>을 텍스트로 삼는다. 텍스트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토록 깊은 밤, 폭풍우 속에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거센 비바람 소리 속에서 얼핏 여자의 음성을 들었던 원효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탓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다.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룩기 전에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자세를 고쳐 점차 선정에 든 원효 스님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빗소리를 분명히 듣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마저 아득함을 느꼈다. 「마음, 마음은 무엇일까?」 원효 스님은 돌이 아닌 분명한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무서운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지직」하고 등잔불이 기름을 튀기며 났다. 순간 원효 스님은 눈을 번쩍 떴다. 비바람이 土幕 안으로 왈각 밀려들었다.

밀려오는 폭풍우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스님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망설였다. 여인은 황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스님을 불렀다. 스님은 문을 열었다. 왈각 비바람이 안으로 밀려들면서 방안의 등잔불이 꺼졌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칠흙 어둠 속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도 스님은 선뜻 들어오란 말이 나오질 않았다. 『스님,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여인의 간곡한 애원에 스님은 문 한쪽으로 비켜섰다. 여인이 토막으로 들어섰다.

『스님 불 좀 켜주세요. 너무 컴컴해요.』 스님은 묵묵히 화롯불을 찾아 등잔에 불을 옮겼다. 방안이 밝아지자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 좀 비벼주세요.』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있던 스님은 펄쩍 정신을 차렸다. 공연히 들어왔나 싶어 후회했다. 떨며 신음하는 여인을 안 보려고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비에 젖어 속살이 들여다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5) 이 점에서 이 텍스트에는 전설적 심성과 편집자 최정희의 의식이 혼재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편집자의 스타일상의 개입이 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설의 견고한 구조성을 훼손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

아닌가.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목석과 다를 바 있으랴.』

스님은 부지중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여인을 안아 침상에 눕히고는 언 몸을 주물러 녹여주기 시작했다. 풍만한 여체를 대한 스님은 묘한 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스님은 순간 여인을 침상에서 밀어냈다. 『나의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야 없지』 이미 해골물을 달게 마시고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스님은 다시 자기 정리를 시작했다. 『해골을 물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맛있더니, 해골을 해골로 볼 때는 그 물이 더럽고 구역질이 나지 않았나. 일체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내 어찌 더 이상 속으랴.』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색심이 일지 않으면 자신의 공부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여인의 몸을 비비면서 염불을 했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는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한 생명일 뿐이었다.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한 생명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다. 남을 돕는 것은 기쁜 일. 더욱이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자비로써 도울 때 그것은 이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는 것이다. 돕고 도움을 받는 자의 구별이 없을 때 사람은 경건해진다. 여인과 자신의 분별을 떠나 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원효 스님은 마치 자기 마음을 찾듯 준엄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앞에 일어나 앉았다. 여인과 자신의 경계를 느낀 스님은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폭풍우 지난 후의 아침 해는 더욱 찬란하고 장엄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많아진 옥류폭포의 물기둥이 폭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훨훨 옷을 벗고 옥류천 맑은 물에 몸을 담그었다. 뱃속까지 시원한 물 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데 여인이 다가왔다.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 여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햇살을 받은 여인의 몸매는 눈이 부셨다. 스님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이는 그 느낌을 자제하고 항거했다. 결국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찌자는 거냐?』 『호호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었다.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귓전을 때렸다. 거센 폭포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이 혼돈으로 가득찬 머릿속을 후미고 들어올 뿐.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을 거듭거듭 뇌이면서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폭포소리가 들렸고 감감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

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을 떴다.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스님은 물을 차고 일어섰다. 그의 발가벗은 몸을 여인 앞에 아랑곳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 나왔다.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고 있었다.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다. 원효 스님은 그곳에 암자를 세웠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自在庵이라 했다. 지금도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폭포가 있고 그 앞에는 스님들이 자재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재암이 있다.

전설은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은 매우 단순하고 거칠며, 분량은 매우 짧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전설의 틀을 벗어나서 구조가 매우 세밀한 섹션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꾸밈의 속성과 값들도 정교하게 부여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명확하게 전설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기도 하다. 먼저 공간(place)을 경기도 동두천이라 하여 장소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시간은 역사적 인물 원효를 등장시킴으로써 원효의 시대로 시간성을 확보하였다. 이야기의 오브제나 등장인물 등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깊이가 있다. 인물의 감정이 섬세하고 풍부하게 묘사되고 있다. 의식의 흐름까지 포착하여 서술함으로써 창작에 육박하는 인상을 준다. 주인공이 특정한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그 공간 내에서 주어진 삶의 한 시점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의 삶에서 제기 되는 관계성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오브제나 인물의 결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주인공인 원효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의 폭이 다소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이야기가 원효 성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효 성자 전설로서 이야기의 서술 구조는 원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구조가 된다. V. 프롭⁶⁾의 기능을 분석 단위로 하여 <나녀의 유혹>

6)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안상훈 옮김, 『민담의 형태론』, 박문사, 2009.

이야기의 순차적·계기적 구조를 추출한다.

01. 원효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동두천 자재암에서 혼자 마음공부를 한다.(결핍)
02. 원효가 뜻밖의 방문객인 미지의 여성을 방으로 맞이한다.(금기)
03. 원효가 불빛 아래 물에 젖은 여인의 육체를 본다.(전환)
04. 원효가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육체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위반)
05. 원효가 언 몸을 따뜻하게 만져달라는 여인의 청을 듣는다.(금기)
06. 원효가 여인의 혈맥을 찾아 언 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전환)
07. 원효가 여인이 일어나 자신의 앞에 다가앉자 경계인 색심을 느낀다.(위반)
08. 원효는 옷을 벗은 여인과 함께 옥류폭포에 들게 된다.(금기)
09. 원효는 해엄을 치면서 자신에게 다가서는 여인과 마주한다.(전환)
10. 원효는 햇살에 빛나는 여인의 몸매를 보면서 생명체 이상을 느낀다.(위반)
11. 원효는 여인을 향하여 항거하듯이 자신을 유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저항)
12. 원효는 여인으로부터 ‘색안은 원효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매개)
13. 원효는 외부의 세계가 전혀 인식되지 않는 내면의 무한한 혼돈에 빠진다.(해체)
14. 원효는 ‘인식하는 그 마음마저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깨달음)
15. 원효는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는 것을 느낀다.(변화)
16. 원효는 후광을 띤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사라지는 여인을 본다.(충족)

(설명단락)

원효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하여 절을 세우고 자재암이라 했다.

(01)의 단락소 ‘결핍’은 ‘원효가 마음공부를 한다’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 원효는 ‘마음, 마음은 무엇일까?’를 화두로 공부를 하고 있다. 원효가 마음 공부를 하는 상황은 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결핍이다.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 원효가 직면한 보다 심각한 2차적 결핍은 마음 공부의 상황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는 데 있다. 그 일은 원효가 공부하는 공간 외부 즉, 미지의 우주로부터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사건이다. 최초 원효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공부 부족 탓으로 돌려서 환청으로 치부한다.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보인 원효의 자기 기만적 방어는 그의 공부가 얼마나 취약한가

를 보여준다. 이처럼 (01) 단락소에서는 2중의 결핍 혹은 균형을 깨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6)의 단락소 ‘충족’은 ‘원효가 보살을 본다’에 대한 정의이다. 이 단락소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보면, 원효가 ‘여성이 후광을 띤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이다. 보살은 관세음보살로 추측된다. 이는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에서⁷⁾ 聖娘이 노힐에게 이르기를 “나는 관음보살인데 여기 와서 대사가 대보리를 성취하도록 도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냥의 모습이다. 『삼국유사』의 ‘광덕엄장조’에서⁸⁾ ‘그 부인은 곧 분황사의 종이니 대개 십구응신의 하나였다.’고 한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관음응신의 33신에 대한 一身으로 본다. 원효가 만난 여인이자 보살은 노힐이 만난 성냥이자 관음보살, 광덕의 부인이자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므로 원효가 관음보살을 친견한 것은 진리에 대한 성취를 이룬 것으로 결핍의 공부 가 ‘충족’된 것이다.

결핍 단락소 (01)에서 충족 단락소 (16)을 순차적·계기적으로 구성하는 중간 단락소는 (02)~(15)이다. 이들 중간 단락소들 중 (02)~(10)까지와 (11)~(15)까지는 내용적으로 구분된다. (02)~(10)까지의 단락소 구성은 인식의 방어막이 본능의 자극에 속절없이 해체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11)~(15)까지의 단락소 구성은 인식의 방어막이 오히려 물자체의 속성을 왜곡한다는 점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해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10)까지의 단락소 구성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뉜다. 그것은 (02)~(04)까지의 단락소 구성, (05)~(07)까지의 단락소 구성, (08)~(10)까지의 단락소 구성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편 (11)~(15)까지의 단락소 구성 또한 세부적으로 나뉜다. 그것은 (11)~(13)까지의 단락소 구성과 (14)~(15)까지의 단락소 구성이다. (11)~(13)과 (14)~(15)의 구성은 내용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기적으로 전자는 깨달음을 후자는 깨달음의 기쁨을 담고 있다.

7) 『삼국유사』 권 제3, 제4 탑상.

8) 『삼국유사』 권 제5, 제7 감통.

(02)~(04)의 단락소 연결을 보면 (02)는 ‘금기’, (03)은 ‘전환’, 그리고 (04)는 ‘위반’이다. (02)가 금기가 되는 것은 여인의 응시[gaze]⁹⁾에 대해 원효의 시선(eye)이 스스로 인식의 방어막을 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는 여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 대해 ‘자신의 공부부족한 것을 탓하기’,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기’,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무서운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기’ 등의 인식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수도자는 여성과의 접촉을 금한다’라는 금기에 대한 반응이다. (03) 단락소에서는 원효의 시선에 ‘불빛 아래 물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포착 된다. 달리 표현하면 원효의 시선 앞으로 육박해오는 육체의 응시[gaze]를 원효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기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건의 발생인데 맥락의 의미로 보면 ‘전환’으로 정의된다. 원효의 시선에 대해 여성의 응시가 주도권을 행사하자 원효의 인식이 쳐놓은 방어막은 (04) 단락소에서 해체되고 만다.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라고 한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금기를 위반하고 그 육체에서 육박해오는 미(美)를 탐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금기에 대한 위반이며 원효의 시선에 대한 여성의 응시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02)~(04)의 ‘금지-전환-위반’의 의미는 시선[eye]에 대한 응시[gaze]의 승리다.

(05)~(07)의 단락소 연결을 보면 (05)는 ‘금기’, (06)은 ‘전환’, 그리고 (07)은 ‘위반’이다. (05)가 금기가 되는 것은 여인이 육체적 접촉(Contact)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원효가 그 접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도자는 여성과의 육체적 접촉을 금한다’라는 금기를 지키는 노력이다. 이 금기와 관련하여 여인은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 좀 비벼 주세요.’라고 한다. 이것은 금기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6)에서 원효는 여성에 대한 육체적 금기를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원효는 그러한 자신감을 근거로 여인의 차가운 몸을 만져준다. 그러나 곧 그에게 색심

9) 『문학비평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 2023년 8월 13일 검색)

이 생긴다. 물러났다가 그의 색심을 초월하는 논리를 굳게 하고 다시 여성의 언 몸을 비벼준다. 그러나 곧 그에게는 경계의 색심이 발생한다. (06)에서 원효가 여성의 언 몸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과정은 (05)의 금기의 상황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07)에서 원효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여성에게서 피할 수 없는 색심의 경계를 느낀다. 이것은 애초에 수도자에게 설정된 금기의 최종적인 위반이다. 스스로 세운 색심 초월의 논리가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만다. (07)의 ‘위반’은 (05)의 ‘금기’에 대한 위반이며 원효의 인식(cognition)에 대한 여성의 육체(body)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05)~(07)의 ‘금지-전환-위반’의 의미는 인식(cognition)에 대한 육체(body)의 승리이다.

(08)~(10)의 단락소 연결을 보면 (08)은 ‘금기’, (09)는 ‘전환’, 그리고 (10)은 ‘위반’이다. (08)이 금기가 되는 것은 여인이 원효와 함께 맨몸의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원효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도자는 맨몸으로 여성과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하는 금기에 대한 반응이다. ‘여인이 옷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온’ 상황은 금기의 위기다. 이것은 젊은 수도자에게 부여된 금기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09)에서 나녀의 여성은 맨몸의 상태인 원효를 향해 다가간다. 그러면서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라고 한다. 원효의 공간적 거리두기를 통한 나녀와의 의도적 접촉 회피에 반한 나녀의 순수한 놀이적 의도이자 걸림 없는 자유분방함이다. 시선[eye]과 접촉(contact)으로부터의 회피 의도에 대한 여성의 천진한 무관심이다. 이 천진하고 자유로운 나녀가 맨몸의 원효 곁으로 조금씩 다가갈 때 금기를 지키려는 원효의 절제(moderation)는 무력화되고 전환이 일어난다. (10)에서 원효는 눈이 부셔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맨몸으로 다가오는 그 나녀의 아름다운 피부가 아침햇살에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눈부심으로부터 원효는 생명체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은 여성의 몸에 대해 가지게 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08)~(10)의 ‘금기-전환-위반’의 의미는 절제(moderation)에 대한 유희(play)의 승리이다.

(11)~(13)의 단락소 연결은 ‘저항-매개-해체’이다. (11) 단락소에서 원효는 여성을 향해 처음으로 적극적 저항을 한다. 이 단락소 이전에도 원효는 반복적으로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11) 단락소에 이르면서 원효는 여성을 향해 앞에서 보이지 않던 강도의 저항을 한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찌자는 거냐?”라는 말을 여성에게 한다. 이 말의 맥락을 풀어 보면 ‘나는 너의 유혹에 넘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너와 함께 방에 있지 않고 이렇게 폭포 안으로 피해서 왔다. 이러한 나의 행동을 통해 너의 유혹을 받아들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 이런 나의 명백한 거부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유혹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나를 유혹하지 말라는 것이다. (12)에서 여성은 ‘유혹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너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원효와 여성의 담론으로서 유일무이하고 대체불가능한, 그리고 전후의 극적 변화를 초래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호호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나는 단락소이다. 현재 원효가 인식하는 ‘유혹’이라는 개념은 외부의 물자체 곧 여성의 고유속성이 아니라 원효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꼭 짚어 말해준 것이다. 여성의 이 말을 들은 원효는 (13)에서 무한한 혼돈에 빠진다. 혼돈에 대해 텍스트는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었다.”, “거센 폭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이 혼돈으로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이라고 한다. 일련의 현상의 원인이 여성의 탓이라고 본 그의 생각이 여성의 그 말 한마디로 송두리째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원인이 사실은 원효 자신의 선형적 마음 작용의 결과라는 것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가 해골물까지 마셔가면서 그토록 힘겹게 공부해서 쌓아올린 깨달음의 성취가 여인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부정되고 해체된 것이다. 그러므로 (11)~(13)의 의미는 자기 중심성(ego-centric)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이다.

(14)~(15)는 ‘깨달음-변화’이다. (14)는 원효의 자기 해체가 일어난

후 얻게 된 내용이다. 텍스트에는 원효에게 일어난 이러한 전회의 깨달음 과정이 잘게 썰린 슬라이스처럼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다. 각 단계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흥미롭다. 첫째 단계에서 원효는 그에게 전회를 가져오게 한 여성의 말을 거듭 생각하면서 서서히 해체의 혼돈에서 빠져나온다. 둘째 단계에서는 잠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사물들의 모습이 서서히 눈앞에 밝게 드러난다. 셋째 단계에서 원효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라는 최종 깨달음에 이른다. 세상을 선형적으로 인식하는 不二의 인식마저도 버려야 不二의 존재에 이른다는 도리를 원효는 깨닫는다. 그 도리를 깨닫자 (15)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15)에서 원효는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된다. 텍스트는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여준다. 첫째 원효는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여인에게 드러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둘째 원효는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는 것을 느낀다. 不二의 존재 깨달음 이후 원효에게 전개된 새로운 존재 세계이다. 그러므로 (14)~(15)의 의미는 不二不二의 깨달음과 순수한 생명 세계와의 합일이다.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01)~(16)까지 전체 단락소 결합은 깨달음에 이르는 원효의 심리 구조이다. 이 구조는 청년 원효가 일련의 유의미한 사건을 겪어야만 한 단계 더 높은 깨달음의 성취를 이룬다는 기획 의도를 잘 실현시키는 듯하다. 이러한 기획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는 단락소를 기준으로 할 때 (2)~(4), (5)~(7), (8)~(10), (11)~(13), (14)~(15) 등이다. 이들 다섯 개의 세부 단락소 결합들은 깨달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2)~(4), (5)~(7), (8)~(10) 등을 전반부로 하고 (11)~(13), (14)~(15) 등을 후반부로 하여 전후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라 할 수 있는 (2)~(4), (5)~(7), (8)~(10)은 구조적으로 반복적이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단락소 정의의 면에서는 세 개의 단락소 결합 모두 ‘금기-전환-위반’으로 동일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2)~(4)에서 원효의 시각(eye)은 여성의 응시(gaze)에 굴복하며, (5)~(7)에서 원효의 인식(cognition)은 여성의 몸(body)에 굴복하며,

(8)~(10)에서 원효의 절제(Moderation)는 여성의 유희(play)에 굴복한다. 원효의 시각, 인식, 절제는 여성의 응시, 몸, 유희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원효가 스스로 자신 있게 생각한 과거 공부의 성과인 시각, 인식, 절제가 그들의 틈새를 통해 존재를 드러낸 존재 응시, 몸, 유희 앞에서 해체된다. 후반부라 할 수 있는 (11)~(13)과 (14)~(15)의 두 단락소 결합은 전회 및 깨달음과 관련된다. (11)~(13)은 원효가 과거 성취한 공부의 성과를 일거에 해체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일으키는 사건들이다. 과거의 성취가 不二의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不二의 인식 수준에 갇혀 있었다는 통렬한 깨달음을 만드는 사건들이다. (14)~(15)는 不二의 인식 수준에 갇힌 것에 대한 자각과 不二의 존재 세계 곧, 순수한 생명 세계에 대한 체험이다. 그러므로 <나녀의 유희> 구조는 不二의 인식론을 해체하고 轉回를 매개로 하여 不二의 존재론으로 나아가는 ‘해체-전회-깨달음’의 의미화 구조이다.

III. ‘불쾌와 쾌’의 숭고미

<나녀의 유희>은 미학적으로 매우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구조가 결속하고 있는 사건들의 전반부의 취미와 후반부의 취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전반부의 사건을 구성하는 (02)~(04)의 사건 결합들, (05)~(07)의 사건 결합들, 그리고 (08)~(10)의 사건 결합들에서는 조화로운 통일성이 모두 깨어져 있다. 반면 (11)~(13)의 사건 결합들을 매개로 해서 (14)~(15)의 사건 결합들에서는 모두 조화로운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전자와 같이 통일성이 깨어지는 취미 판단을不快라 하며 후자와 같이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취미 판단을 快라 한다. 그리고 이 ‘불쾌-쾌’가 순차적으로 한 셋트로 결합된 취미의 판단을 崇高라고 한다. 칸트의 취미판단에 따르면 <나녀의 유희>은 전형적인 ‘불쾌-쾌’의 숭고 취미를 보여주고 있다.¹⁰⁾

<나녀의 유희>의 구조가 실현하는 취미의 판단은 숭고미이다. 본 장

에서는 ‘해체-전회-깨달음’의 의미 구조를 통해 실현되는 숭고의 미가 어떠한 스타일링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는지 살핀다. 먼저 전반부의 ‘불쾌’의 꾸밈에 대해 살핀다. 전반부는 ‘불쾌’가 세 번 반복된다. 그 불쾌는 (2)~(4)와 (5)~(7), 그리고 (8)~(10)에서 반복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의 면에서 보면 반복된 불쾌는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그 다름과 함께 이 세 개의 불쾌는 그 강도에 있어서도 점점 세지는 경향을 보인다. (2)~(4)에서의 불쾌보다는 (5)~(7)의 불쾌감이 더 강하며, 그리고 (5)~(7)의 불쾌감보다는 (8)~(10)의 불쾌감이 더 강하다. 강도를 더해가며 반복되는 불쾌를 살핌으로써 이 감정이 이후 어떻게 쾌의 감정과 결합하는지 알아본다.

(02)~(04)의 결합은 원효의 시선[eye]과 여성의 응시[gaze]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사건이다. 원효는 지난 날 공부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맹렬히 공부한다. 한 밤 중이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칙흑같은 어둠이다. 홀로 금방 꺼질 듯한 위태로운 불빛 아래서 마음공부를 한다. 외부와 격리된 방은 매우 안전해 보인다. 그 방이 외부와 연결되는 순간 매우 위험해 보인다. 순간 방안의 평화를 깨는 여성의 목소리가 방안으로 틈입한다. 원효가 지배하는 방안의 평화와 고요, 그리고 통일은 외부로부터 들린 낮선 목소리로 인해 순식간에 깨어진다. 원효가 방문을 열자 여성의 존재가 응시[gaze]한다. 그것을 원효의 시선[eye]이 스크린에 포착한다. 여성의 응시는 방의 밖으로부터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럴수록 원효의 시선은 그 응시를 스크린에 포착하고 컨트롤하고자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크린에 응시가 포착되어야만 그의 최초의 평화와 고요, 그리고 통일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옷에 가려진 존재에서 비에 젖어 육체가 드러나는 존재로 원효의 시선에 더욱 감각적으로 육박해온다. 마침내 원효의 상상력은 여성의 응시를 그의 시각으로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 원효는

10) 칸트의 숭고미학의 관점에 볼 때 이 작품이 성취한 미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칸트의 숭고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나녀의 유혹>이 성취한 ‘불쾌-쾌’의 미를 적확히 설명할 수 있다.

최초의 평화와 고요, 통일성의 유지에 실패한다. 이것은 시선[eye]이 응시[gaze]를 수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포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패의 감정이 곧 불쾌이다.

(05)~(07)의 결합은 원효의 인식과 여성의 몸의 갈등을 위해 설정된 사건이다. 투명한 옷을 밀어내고 비에 젖은 맨살이 불빛 아래 드러난다. 여성은 비에 젖은 차가운 몸의 체온 때문에 원효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한다. 원효는 여성의 제안을 감당할 수 없어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원효에게 비에 젖은 여인의 속살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그려진다. 원효는 이를 인식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과거 깨달음의 성취를 상기한다. 이어서 여인의 몸에 흐르는 혈을 주물러 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그 순간 원효는 또 한번 인식의 통제를 넘어 육박해 오는 육체의 도전에 묘한 느낌으로 반응한다. 눈을 감는 노력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의 몸을 밀어낸다. 그와 동시에 여인의 몸을 인식론적으로 극복하면 자신의 공부는 완성될 것이라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그런 다음 원효는 염불을 외우면서 다시 여인의 몸을 따뜻하게 만져준다. 원효는 ‘생명’, ‘자비’, ‘구별과 분별을 없앴’ 등을 떠올리면서 몸이 전해오는 도발을 인식론적으로 통제한다. 최종적으로 여인이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원효 앞에 일어나 앉는다. 이 순간 여인의 몸이 전해오는 느낌을 막아내던 인식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 그와 동시에 원효는 그 자리를 떠난다. 이 사건에서도 원효는 여인의 몸에서 전해오는 묘한 느낌 때문에 최초의 평화와 고요, 통일을 유지하지 못한다. 인식이 상상력을 통해 여성의 몸(body)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포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실패의 감정이 곧 불쾌이다.

(08)~(10)의 결합은 원효의 절제와 여성의 유희가 충돌하는 사건을 그려낸 것이다. 원효는 육박해오는 여성의 몸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폭포로 도망간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그래서 그곳에서 수행해야 할 마음공부를 포기하고 도망친 것이다.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공부의 과제를 극복하지 못한 심리적 회피다. 여성의 응시와 여성의 몸을 감당하지 못

한 자기 패배이다. 도망을 친 폭포에서 원효는 자기 기만적 심리를 보인다. 아침의 풍경에 대해 ‘폭풍우 후의 아침 해는 찬란하고 장엄하다.’며 상상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폭포에 대해서도 ‘간밤의 폭우로 옥류폭포 물기둥이 폭음을 내며 떨어진다.’고 하여 그 장엄함을 장식한다. 원효는 이전 공간의 불쾌를 잊고 폭포 속에서 ‘뺏속까지 시원한 물 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낀다.’ 그러나 이 희열은 가상의 희열이고 자기기만의 희열이다. 여성은 그 가짜의 희열에 빠진 원효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몰아세운다. 원효가 도피한 폭포의 물속까지 들어와 원효에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여인은 스님과 목욕을 하겠노라면서 옷을 벗어 버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원효의 곁으로 간다. 그때 여인의 몸매는 아침햇살을 받고 눈이 부시게 빛난다. 여인은 원효의 회피하는 심리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효가 쓴 가면 안으로 여성의 육체적 도발이 스며들게 한다. 원효는 여성의 도발을 절제(moderation)로서 이겨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 실패가 불쾌의 감정이다.

(11)~(13)에서 원효의 ‘웅크림’이 발생한다. 2017년 이은우 작가의 캔버스 유채¹¹⁾에는 쪼그려 앉은 채 두 팔로 정강이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이 이미지는 외부의 공간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가장 강하게 내부로 집약하는 모습이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한점 끝까지 회피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모습이다. 짐승들은 그들이 아플 때 자신의 보금자리에 몸을 웅크린 채 회복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면의 에너지가 한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 경우 한없이 뒤로 물러나 한 점 빛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 웅크린다. 그리고 그렇게 쪼그린 채 동물과 같이 내면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치유의 에너지가 생길 때에서야 비로소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찾는다. 이 상태 곧 내면의 에너지가 한 순간 사라지고 난 후 이를 치유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재 원효의

11) 작가 이은우, 작품정보: 캔버스 유채, 91x117cm (50호), 2017, 작품 코드: A0673-0012.

상황이다. (11)~(13)에서 원효는 코페르니쿠스 전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웅크림’의 정지를 경험한다.

(11)~(13) 중 (11)에서 원효는 여성을 향하여 다소 체념의 뜻을 비친다. 자신의 시선(eye), 인식(cognition), 절제(moderation) 등이 여성의 응시(gaze), 몸(body), 유희(play) 앞에 허물어졌음을 시인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찌자는 것이냐?”라는 말에는 이제 권력이 여성인 너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효의 상상력으로는 여성의 본질적 속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의 솔직한 고백이다. 여성의 응시, 몸, 유희의 수적 양적 크기가 원효의 질서부여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원효는 사건의 진행 과정 초기에 매우 큰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이 과거 성취한 수준의 상상력은 한 여성을 충분히 통제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원효가 여성에게 이처럼 고백하는 지점에 오면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상상력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판명된다. 원효의 이 무능함은 그에게 매우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며 이 좌절감은 불쾌한 감정으로 낙착된다.

(12)에서 원효는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호호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라고 한다. 원효는 여성이 자신을 유혹한다고 했다. 여성은 원효가 자신을 유혹한다고 한다. 이 문제가 <나녀의 유혹> 이야기의 핵심 쟁점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여성의 말이 맞다면 원효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효는 스스로가 유혹의 색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점에 대해 스스로 원효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원효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의 불확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주체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원효가 틀렸다면 원효가 색심을 가지고 여성을 유혹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여성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면 원효의 자기반성 능력, 자기 성찰의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지점이다. 원효의 시각(eye), 원효의 인식(cognition), 원효의 절제(moderation)가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3)에서 원효는 색안의 원인이 그에게 있다는 여성의 말을 듣고 ‘웅크림’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혼돈’에 빠졌다는 것은 원효의 정신이 더 이상 작동하기를 중지하고 웅크림의 상태로 수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주체는 말하는 주체이기를 중지한다. 대신 말해지는 주체가 된다.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귓전을 때렸다”라거나, “여성의 음성이 혼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과거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원효는 소리 만들기의 주체이기를 중지한 채 침묵의 시간을 보낸다. 이 윤희된 심리의 공간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는 의미가 없다. 내면의 치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곳의 시간은 물리의 시간이 아닌 심리의 시간이다. 원효는 이 심리의 시간에서 내면의 상처 곧, 자기의 상상력을 압도한 여성의 응시, 몸, 유희로부터 받은 절망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린다.

(13)에서 원효는 ‘웅크림’의 심리적 시간을 보낸 후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 원효는 “색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을 거둑거둑 뇌이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이 정신을 차린 상황에서 “폭포소리가 들렸다.”, “캄캄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원효가 눈을 뜬 상태는 아니다. 눈을 감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 눈을 감은 상황에서 원효가 보고 들은 그 자연의 소리와 이미지는 무엇인가? 칸트는 외부의 사물로부터 상처받은 의식이 치유의 시간을 보낼 때 내부로부터 들려온 이성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이때 상상력은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외부보다 더 큰 이성을 만나 위로받는다고 한다. 원효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을 본다고 했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원효의 상상력이 마침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 내면의 이미지를 본 것이다. 내면에서 경험한 이 사건에서 원효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은 아직 언어로 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

을 뗐다.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눈을 뜨기 전의 시각적 청각적 경험 내에서 얻은 깨달음은 아직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은 선이해 지점의 깨달음이다.

(14)에서 원효는 내면의 깨달음을 후행적으로 언어로 표현한다. “옹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도리.” 이렇게 그의 ‘옹크림’ 이후 발견한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한다. 깨달음의 핵심은 ‘마음’과 ‘버림’이다. 그 ‘마음’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스스로 알고 성찰하는 주체의 마음이자 스스로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원효의 시각[eye], 인식(cognition), 절제(moderation)이다. 그의 시각, 그의 인식, 그의 절제 그것이 모든 것을 생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항상적 실체로서 자기인 줄 알게 했던 것이다. 원효의 모든 것을 생성하게 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不二의 마음이다. 대립적으로 고정화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구조화의 마음이다. ‘버림’은 不二의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버림’은 내게서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나와 의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안고 넘어서는 것이다. 그 마음이란 것이 사실은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무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고 머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버림’은 不二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초월이다. 원효는 不二의 인식 세계를 초월하여 不二의 존재 세계로 가는 길, 그 길을 도리로서 깨달은 것이다. 원효는 상대적 구조화의 마음을 초월하여 가능성의 세계인 존재의 세계, 관계의 세계, 존재와 무의 세계를 본 것이다. 협소한 이성의 세계가 아닌 그것을 초월한 생명 그 자체의 세계 순수세계를 본 것이다. 원효는 마침내 생명과 하나 되는 성스럽고 초월적인 종교체험을 한 것이다.

(15)는 종교체험을 한 원효의 기쁨, 희열, 환희의快와 관련된 사건이다. 종교적 체험 이후 생긴 원효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열락이며 환희이며, 희열이다. 이 기쁨이 행위로 나타날 때 원효는 알몸으로 물을 차고 일어선다. 원효는 그의 발가벗은 몸을 그 여성 앞에

드러낸다. 원효는 여성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온다. 원효를 둘러싼 모든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삼라만상은 생명으로 넘쳐 생동한다. 원효는 이 생명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가 이전의 ‘마음’을 버리는 순간 자연과 우주와 마침내 하나가 된다. 환희와 희열의 기쁨을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한다.’로 묘사한다.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무아가 되자 그 눈앞의 여성은 어느새 금빛 후광을 띤 보살이 된다.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눈앞의 여인은 한갓 그를 유혹하는 여인이었다. 원효가 보살을 보게 된 종교적 체험에서 발생한 희열과 환희의 감정은 신비스럽고도 성스러운 자기 구원의 감정이다.

<나녀의 유혹> 이야기 구조는 ‘해체-전회-깨달음’의 의미를 이루는 동시에 ‘불쾌-쾌’의 특별한 승고의 미(美)를 성취한다. (2)~(4) 단락소 결합에서는 원효가 여성의 응시[gaze]를 통일성 있게 전체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불쾌의 감정을 낳는다. (5)~(7) 단락소 결합에서는 원효가 여성의 몸[body]을 통일성 있게 전체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불쾌의 감정을 낳는다. (8)~(10) 단락소 결합에서는 원효가 여성의 유희[play]를 통일성 있게 전체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불쾌의 감정을 낳는다. 원효가 외부 환경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체를 포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10) 단락소까지는 원효의 평화와 고요, 질서와 통일의 아름다움이 반복적으로 파괴된다. 이러한 전체를 통일성 있게 포착하지 못하는 상상력의 무능이 ‘불쾌’를 낳는다. (11)~(13) 단락소 결합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발생한다. 상상력이 여성의 응시와 몸, 그리고 유희를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포착하지 못함으로부터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물러나 웅크림의 전회가 일어난다. 그 웅크림의 치유적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는 서서히 새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새로운 내면의 세계를 향한다. 이 내면의 세계를 향함으로써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를 통해 도리를 얻는다. 도리의 깨달음은 그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며 생명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 그 결과 희열과 환희의快 감정을 맞본다. <나녀의 유혹> 이야기 구

조는 ‘불쾌’와 ‘쾌’의 감정을 하나의 연속적 감정인 ‘불쾌-쾌’로 통합한다. 그 감정의 통합이 崇高이다. 이 ‘불쾌-쾌’의 美는 현대의 포스트모던 美學 특히 단색화의 美學에서 맛볼 수 있는 한국적 崇高美의 전통이다.

IV. 여성이 곧 보살이라는 종교적 체험

<나녀의 유혹> 이야기가 구조적으로는 ‘해체-전회-깨침’의 의미화이며, 미학적으로는 ‘불쾌-쾌’의 숭고의 美라는 것을 밝혔지만 이 이야기 갈래를 전제로 할 때 아직 답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종교 전설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자 전설 혹은 자재암 연기 전설로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성자 전설로서는 원효가 도리를 깨친 과정을 명료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재암 연기 전설로서는 이 암자가 창건된 사연을 심플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종교 전설로 보더라도 특별히 이해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녀의 유혹>을 이해하는 선이해의 과정에서 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원효가 裸女를 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전반부에서는 나녀를 유혹하는 여성으로 보았으며 후반부에서는 금빛 후광이 어린 관세음보살로 보았다. 원효 혹은 불교의 이중적 여성관을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원효가 구도자이자 신라 십성에 드는 고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녀의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에서 여성들과 연루되는 것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가령 요석 공주와의 이야기¹²⁾, <낙산사 이대성>에서 벼 베는 아낙과 빨래하는 여성과 주고받는 회언의 이야기, 거사와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는 했다는 이야기¹³⁾ 등이 그런 이야기들이다. 원효는 거리에서 스스로 인연을 찾는 데 적극적이었으

12) 화당, 「원효의 여성관」, 『불교』 28집, 1940, 30~33쪽

13)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며, 또한 여자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남기며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여염집에도 유숙하였다.¹⁴⁾

‘여성에 대해 불교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은 오늘날 페미니즘 논쟁과도 관련된 것인 만큼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무엇보다 불교의 여성관을 살피기 위해 ‘女性成佛論’¹⁵⁾을 중심에 놓아 보는 것은 논의를 매우 단순하고 명료화하는 장점이 있다. 여성성불론은 ‘여성의 자기 개발과 종교적 완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도 자기 개발과 종교적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 깨달음을 얻어 완벽한 인격체를 가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¹⁶⁾을 뜻한다. 여성성불론의 시작은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성도 출가 수도하면 최후에는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여성도 출가 수도하면 아라한과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한데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여성성불이 부처님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 이후 여성성불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는 女性不成佛論의 입장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부파불교의 입장이다. 여성불성불론은 女性五障說과 여래32상호설을 통해 완곡하게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부처님이 아닌 사리불의 입을 통해 나왔다. 둘째는 女性變成成佛論 혹은 變成男子成佛說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초기 대승불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화경》 「제바달다품」 <팔세 용녀의 성불>의 ‘용녀가 구슬을 바치고 성불하다’의 내용을 보면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

14) 김덕원, 「원효와 의상의 여성관에 대한 고찰」, 『고려사학회』 33집, 한국사학보, 2008, 67쪽.

15) ‘여인성불’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신명희(정운)의 「여인성불에 대한 당위성과 모순점에 대한 일고」(『동아시아불교문화』 33집, 2018, 287쪽)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불교와 젠더’ 주제는 매우 생산적인 논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는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면에서 기여할 점이 많다고 본다.

16) 이현옥,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 성불론」, 『불교평론』, 2023년 5월 17일(<http://www.budreview.com>, 2023년 8월 12일 검색)

루었습니다. 三十二相과 팔십 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였습시다.’라고 한다. 八世龍女가 잠깐 남성으로 변한 후 成佛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女性成佛論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대승불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곧, 《승만경》에 나온다. 이 경은 승만부인이 가르침을 설하면 세존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세존이 승만에게 창작성불하리라고 授記한다. 이것이 여성성불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女性成佛論은 시대에 따라 ‘여성불성불론’의 입장, ‘여성변성성불론’의 입장, 그리고 ‘여성성불론’의 입장이 서로 혼재·교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녀의 유희>의 구조에 따른 ‘해체-전회-깨달음’의 의미[sense], 구조의 꾸밈에 의해 실현된 숭고미를 여성성불론의 관점에서 의미[meaning] 해석하는 것은 이 텍스트의 이해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먼저 구조의 (02)~(04)의 사건 결합에 보인 원효의 시각(eye)은 여성의 응시(gaze)와, (05)~(07)의 사건 결합에 보인 원효의 인식(cognition)은 여성의 몸(body)과, (08)~(10)의 사건 결합에 보인 원효의 절제(moderation)는 여성의 유희(play)와 대립한다. 이러한 대립의 과정에서 원효의 시각과 인식, 절제는 여성의 응시와 몸, 그리고 유희를 수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포착해서 질서를 부여하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통해 여성의 본질을 얻고자 한다.

원효는 자기의 시각과 인식, 절제를 제일 원인적 실체로 고정된 상태에서 밀려오는 존재의 응시와 존재의 몸, 그리고 존재의 유희를 수적으로 질적으로 포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시각과 인식, 절제는 오성의 영역만을 포섭할 뿐 감각과 정서의 정동 영역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여성의 존재가 드러나는 응시, 여성의 존재가 드러나는 몸, 존재가 드러나는 유희는 사고의 영역이 아니라 주요하게는 감각과 정서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인식과 사고 중심의 제일원인성을 고집하는 원효의 주체는 감각과 정서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자기 제일원인성에 집착함으로써 여성의 응시와 몸, 그리고 유희는 왜곡된다. 그 왜곡

이 유혹하는 여성, 색욕을 도발하는 육체, 성[sex]의 욕망 등의 相이다. 왜곡이 만든 이 相은 진리로서 여성과는 거리가 멀다.

폭풍우가 치는 외부공간으로부터 밀고 들어온 온통 비에 젖은 여성은 하나의 기호이다. 기호는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이다. 기호로서 여성은 기표이다. 기표로서 여성은 진리를 보여준다[gaze]. 그런데 원효의 시각(eye)이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스크린으로 막아내고 왜곡한 것이다. 응시의 진리를 수용하지 못한 채 스크린에 그려낸 이미지는 남성을 유혹하는 相이다. 비에 젖은 여성의 몸(body) 또한 하나의 기표이다. 이 기표를 통해 드러난 여성의 진리를 원효의 인식(cognition)이 수용하지 못하자 왜곡이 일어난다. 이 왜곡의 이미지가 남성의 색욕을 자극하는 相이다. 옷을 벗고 물 속에 들어온 여성의 유희[play] 또한 하나의 기표이다. 이 기표를 통해 드러난 진리를 원효의 절제(moderation)가 수용하지 못하자 왜곡이 일어난다. 이 왜곡의 이미지가 성적 욕망[sex]의 相이다. 유혹하는 여성의 相, 색욕을 도발하는 여성의 相, 성을 위한 욕망의 여성 相 등으로 여성의 相을 부정적으로 왜곡한다. 그러므로 여성불성불론의 심리적 근거가 되며, 여성의 존재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왜곡된 부정적 여인상은 편협한 남성 중심적·인식 중심적·실체론적 관점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1)~(13)의 사건 결합과 (14)~(15)의 사건 결합은 여성성불론과 상관성을 보인다. (11)~(13)은 여성불성론의 인식론적 한계를 폭로하며 자기 원인성의 인식론을 해체한다. 해체의 코드가 “호호호,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합니까?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보시면서.”이다.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본다.’는 말은 주체의 자기 원인성을 지적한 것이다. 자기의 實體性을 전제로 한 자기 원인성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오직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게 한다. ‘유혹’이라는 현상은 하나의 물자체에 대한 여러 현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이 여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원효의 관점에서 여성이라는 물자체를 해석하면 ‘유혹’이다. 다른 관점에서 여성이라는 현상을 해석하면 ‘유혹’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제일 원인성만을 고집할 수 없고 수많은 관

점을 허용하는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여성이 알려준 것이다. 원효가 스스로 진리라 생각한 것은 절대 보편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원효의 관점에서 해석된 진리일 뿐이라는 것, ‘유혹’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이 여성은 알려준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시각과 인식, 절제를 통해 본 물자체의 현상만이 절대 보편의 진리이다’라는 원효의 생각을 해체한다. 원효의 부정적 여성 相이자 여성불성불론의 심리적 근거가 되는 여성상에 대한 해체이다. 그러므로 <나녀의 유혹>의 페미니즘적 의의는 ‘여성의 관점을 통해 남성의 관점을 해체하는 데 있다’라고 하겠다.

(14)~(15)는 여성성불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님이 저를 색안으로 본다’라고 한 여성의 말에 원효는 즉시 자신의 인식을 해체하는 놀라운 자기 파괴적 창조성을 보인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이것이 원효가 깨달은 도리이다. 원효가 깨달은 도리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고 해체하고 파괴해야 할 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 진리를 구조화하여 마침내 없던 相을 만들어 내는 인식 작용이다. 그런데 이 인식 작용을 왜 버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相을 만드는 그 구조화의 인식 작용은 어찌할 수 없이 존재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화의 마음이 시각이고 인식이며, 절제이다. 원효가 보고, 인식하고, 절제한 마음은 존재 진리의 구조화 과정에 개입하며 그 결과 존재 진리를 왜곡한 것이다. 유혹하는 여성 相, 색욕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相, 성적으로 욕박해오는 여성 相 등은 구조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왜곡의 相이다. 원효는 존재 진리 곧 진리로서 여성을 왜곡하는 마음 작용의 메커니즘을 깨달은 것이다.

원효는 여성의 이 말에 주저함 없이 자기 마음을 창조적으로 해체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만적 깨달음에 자만하며 자기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저항 없이 바로 인정한다. 원효는 번갯불에 맞은 것같이 과거 자신의 마음 작용 메커니즘을 순간 해체하는 놀라운 자기 파괴적 창

조성을 보인다. 원효는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라는 것을 수용한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마음’, 존재 진리를 드러내는 마음, 대립적 관계를 통해 가치를 드러내는 구조화의 마음, 자기중심적(ego-centric) 마음, 不二의 마음 등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존재 진리와 만나는 도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 이후 진리로서 여성을 만나는 체험을 (15)는 말한다. 이 단락 소에서 원효는 첫째 자신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여성 앞에 자신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진리로서 여성을 보는 명상적 지혜의 눈을 확보하는 순간 원효는 무애에 이른다. 둘째 원효는 생동하는 생명의 세계와 일체감을 느낀다. 원효는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다. 감각과 인식과 정서를 한 셋트로 한 생명 의지가 차별 없는 평등의 생명 세계와 一合相이 된다. 셋째 원효는 눈앞의 여성이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관세음보살로 보이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현상을 체험한다. 不二의 마음을 버리는 순간 유혹하고 색욕을 일으키고 성적 결합의 욕망을 발산하는 여성이 성스럽고 초월적인 신격 곧 不二의 존재 진리인 관세음보살이 된다.

원효가 본 보살,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은 여성성불론의 심리적 근거가 된다. 사실 여성불성불론은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소환된 기호이다. 그러나 원효가 ‘그 도리’를 깨치는 순간 그 여성불성불론의 심리적 근거가 되는 기호들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이었는지가 폭로된다. 그와 동시에 여성성불론의 기호들이 진리로서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후광’은 성스러운 존재 곧 여성성불을 지지하기 위해 소환된 기호이다. 후광은 불보살의 몸 뒤로부터 내미치는 빛이다. 이것은 성스러움과 초월의 기호이다. 원효가 깨의 희열에서 만난 보살 또한 성스러움과 초월의 기호이다. 후광을 띤 보살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분별이 없는 존재이며 대극을 초월한 존재이다. 존재 진리로서 不二의 세계에서는 존재 구분은 혹은 존재 차별

은 없다. 전근원적으로 실체로서 여성이니, 실체로서 남성이니 하는 고정된 구분과 차별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不二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不二의 존재 진리 세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대립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관세음보살이다. 이 지점에서 문학작품으로서 <나녀의 유혹>은 ‘여성 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다’라는 문장 은유·새로운 은유를 개방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원효에 관한 성자 전설이자 자재암 연기 전설인 <나녀의 유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텍스트는 채록 및 편집 수록자의 과도한 개입이 보이기는 하지만 원효와 관련한 매우 완성도 높은 문제적 작품이기도 하다. 선행연구가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시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초기 연구로서 본 연구는 이 텍스트의 구조적 의미[sense]와 미학적 성취, 그리고 구조적·미학적 성취가 여성성불론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significant]를 띠는지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녀의 유혹>의 구조는 최초 단락소 <결핍>에서 최종 단락소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순차적·계기적 사건 결속이다. 이 구조는 ‘해체-전회-깨침’의 의미화에 기여한다. ‘해체’는 ‘<금기>-<전환>-<위반>’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구도자 원효의 자기중심적 도덕 금기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회’는 원효의 인식론이 180도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저항>-<매개>-<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회’를 통해 구도자 원효가 지키고자 한 도덕적 준칙이 사실은 실체론적 자기 중심성에 갇힌 것이라는 것이 폭로된다. ‘깨침’은 ‘<깨달음>-<변화>’를 통해 발생한다. 원효는 ‘깨침’을 통해 진리로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주체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체-전회-깨침’의 구조적 의미는 ‘원효가 주체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不二의 존재 진리를 체험케 하는 문학적 기획 의도’를 실행하

는 것이다.

둘째 ‘해체-전회-깨침’의 구조적 의미는 <나녀의 유혹>의 특별한 미학적 성취를 가져온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숭고미 관점에서 볼 때, <나녀의 유혹>은 전형적인 숭고의 감정을 미학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숭고미는 ‘불쾌-쾌’의 이중 감정을 나타내는 미적 취미 판단인데 <나녀의 유혹>은 이 ‘불쾌-쾌’의 이중 감정을 성취하고 있다. ‘해체’의 의미화 과정에서 원효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시시각각 욱박해오는 여성의 응시, 여성의 몸, 여성의 유희의 통일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의 응시, 몸, 유희의 크기는 원효의 상상력을 벗어난 것으로 원효에게 커다란 위압감으로 다가간다. 이 위압감으로부터 원효는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며 이로 인하여 불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편 원효는 ‘웅크림’의 치유 시간을 보낸 후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원효는 약동하는 생명 세계의 소리를 듣고 생명 세계의 진리를 체험한다. 이러한 신비한 초월적 체험을 통해 기쁨의 감정, 희열의 감정을 맛본다. 이 지점에서 해체의 불쾌 감정이 깨침의 쾌의 감정과 결합하면서 ‘불쾌-쾌’의 崇高美를 성취한다.

셋째 ‘불쾌-쾌’의 숭고미를 가능하게 한 ‘해체-전회-깨침’의 의미[sense]에 대해 여성성불론의 관점에서 의미[significant]를 논해보았다. 논의의 결과 ‘해체’의 과정에서는 ‘여성의 관점을 통해 남성의 관점을 해체한다’라는 의미를 <나녀의 유혹>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체되는 남성의 관점은 진리로서 여성을 왜곡하는 남성중심적 관점이고, 감각과 정서를 포함하지 못하는 편협한 인식중심적 관점이고, 주체의 확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실체론적 관점이다. 해체되어야 할 이러한 남성의 관점이 여성불성불론의 인식론적 근거가 되어왔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깨침’의 과정에서는 ‘여성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다’라는 의미를 <나녀의 유혹>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不二의 인식론, 대립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구조체계로서 언어를 초월할 때, 不二의 존재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그 불이의 생명 세계에서는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렇기 때

裸女 앞에 선 원효, 그리고 그의 숭고한 체험(김기호)

문에 문학으로서 <나녀의 유혹>은 기존의 사상이나 종교와 다른 새로운
은유를 창조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8월 2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논문>

김덕원, 「원효와 의상의 여성관에 대한 고찰」, 『고려사학회』 33집, 한국사학보, 2008.

신명희(정운), 「여인성불에 대한 당위성과 모순점에 대한 일고」, 『동아시아불교문화』 33집, 2018.

화 당, 「원효의 여성관」, 『불교』 28집, 1940.

<저서>

블라디미르 프롭 지음, 안상훈 옮김, 『민담의 형태론』, 박문사, 2009.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19.

일연, 『삼국유사』.

최정희, 『한국불교전설』 99, 우리출판사, 단기2530.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기타>

『문학비평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 2023. 8. 13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자재암」(<https://encykorea.aks.ac.kr>, 2023. 08. 06 검색)

이현옥,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 성불론」, 『불교평론』, 2008. 06(<http://www.budreview.com>/2023.8.23 검색).

이은우, 작품정보: 캔버스 유채, 91x117cm (50호), 2017, 작품 코드: A0673-0012.

Abstract

Wonhyo before Nanyeo and the Religious Sublime Aesthetics

Kim, Ki-ho

"Seduction by Nanyeo," one of Wonhyo's legend, is not only problematic in the aspects of structure, aesthetics, and women's studies, but it also boasts a high level of completion. In terms of structure, the story establishe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Wonhyo's realization beautifully. It created the process of him dismantling his perceptions and making a leap to a dimension of a new being through his repentance with structural excellence. In terms of aesthetics, the story achieved the sublime aesthetics of "unpleasantness and pleasure" to integrate unpleasant and pleasant emotions. As Wonhyo fails in granting unity to female beings by capturing them numerically and quantitatively, unpleasant emotions are aroused. Then he turns his head into his inner side and has a mysterious religious experience inside, thus tasting blissful pleasure. As he tastes both unpleasant and pleasant emotions, "Seduction by Nanyeo" achieves the aesthetics of the sublime. Finally, "Seduction by Nanyeo" implies two meanings in the viewpoint of women's studies or women's Buddhahood theory. One is "dismantling male perspectives through female ones," and the other is "Women are always Avalokiteśvara." Unlike Wonhyo's other tales, this story takes women as truth and a core issue and thus has its differentiating significance recognized.

keywords :

Wonhyo, Nanyeo, perception, being realization, sublime aesthetics,
women's Buddhahood theory, Avalokiteśvara, Jajaeam